

# DJ 고향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상징  
전남도 경관·생태·조경 등  
전문가 자문 받아 종합계획  
토지 매입·조림 등 350억 투입

고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 일대에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숲'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이 평화의 숲을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하늘·바람·섬·숲이라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의미를 담은 서남해안 관광문화 플랫폼으로 삼을 방침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한반도 평화의 숲 구상 영역을 통해 경관·생태

·환경·조경·관광·산림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평화의 숲 조성에는 토지 매입 100억원, 조림사업 250억원 등 모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의 숲 구상을 위해 하의도를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섬 주민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의도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평화의 공간인 만큼 경건하고 감동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신해양시대 서남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블루 이코노미 대표 상징숲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등 3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을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숲을 조성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평화의 탄생'은 하의도 선착장에서 생가와 그 주변을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과 소년 김대중을 추억하는 공간이다. 생가앞은 소통과 화합의 '후광 평화광장',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평화의 숲길', '갯벌정원', '태극마당', '우리꽃 정원' 등으로 꾸며진다. 생가 뒷편 해양테마파크 주변에는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한 '배롱나무 정원'을 조성하고, 뒷산에는 난대림으로 '후광 언덕숲'을 조성한다. '인동초 정신' 구간은 생가에서 김 전 대통령이 어린시절 수학했던 덕봉서당, 하의 초등학교를 지나 섬 반대편 큰바위 일굴(죽도)까지다. 고통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

는 구간으로 '김대중 기억의 숲길'로 계획하고 있다. '평화의 마당'은 생가 반대편 큰바위 일굴 주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큰바위 일굴(죽도)과 서남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노을공원'으로 각각 만든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생가 진입로의 우장한 숲길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하의도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 성지로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섬"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서남해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해양 쓰레기 제로화' 을 571억 투입

지킴이 늘리고 친환경 부표 보급

전남도는 도서·연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5개 분야 22개 사업에 5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마다 다른 지역에서 밀려오거나 자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약 2만6000t에 달한다. 이들 해양쓰레기의 '0'화를 위해 사전 예방, 수거 효율화, 처리 기반 확충, 재활용 확대,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세분화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바다환경지킴이'를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2개 시·군 198명으로 대폭 증원, 주요 해안가에 배치해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와 투기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또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4개 시·군 131억원,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10개 시·군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과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도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산성이 감소된 어장환경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청정어장 재생 기초조사'를 실시, 내년도 해수부가 추진할 어장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침적된 각종 어구와 어망, 파과도 일제히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44억원으로 육상·선상집하장 70개소를 설치하고, 인력·장비 접근이 곤란한 50호 미만의 유인도서와 무인도서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사업비 96억원)을 건조하는 등 수거처리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자체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온 해양보전분야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올해 2억원으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 주도의 정화활동에서 벗어나 민간단체가 주도한 내실 있는 해양보전 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디자인 다양화 획일적 아파트 없앤다 건축심의기준 정비

광주시는 "아파트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고층·고밀의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는 아파트가 주택유형의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의 양적공급이 이뤄지면서 단순 반복 형태의 획일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문가 및 총괄건축가 등과 자문회의 7회, 시의회 및 자치구, 관련협회 의견수렴 2회, 건축위원회 심의 3회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정비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이달 중순께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된 심의기준은 우선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고, 입체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고층·고밀 병풍형 아파트를 없애고, 조망확보를 위해 건물 입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면차폐도)도 제한한다. 1개 층의 호수를 4호로 제한하고, 25층 이상은 탑상형을 권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11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국내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주)솔트룩스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조인철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정일 (주)솔트룩스 대표이사, 안준형 (주)솔트룩스 본부장, 김정태 (주)솔트룩스 이사, 이윤진 (주)솔트룩스 책임연구원. (광주광역시 제공)

# 인공지능 국내 최다 특허 보유 기업 '솔트룩스' 광주에 등지

AI 집적단지에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수도'를 선언한 광주에 국내외 관련 업체들의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내 AI업계 최다 특허를 보유한 (주)솔트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솔트룩스는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분석 등 지난 20여년 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 온 AI 전문 기업이다. 광주시와 솔트룩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에 조성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솔트룩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용 데이터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에 협력하고, 올해 100명과 내년 200명을 채용해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도 창출한다. 솔트룩스는 이달 중 광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하반기 별도 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다. 자체 보유한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 140억개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 연구와 창업에 활용하도록 광주시와 성과물도 기증할 예정이다. 이정일 솔트룩스 대표는 "인공지능 산업은 지역이 아닌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로

선택과 리더십에 따라 어떤 도시든 세계적으로 도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관 상생협력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광주에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최근 국가보안연구소 광주 사무소,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인공지능표준연구원, 티맥스소프트 기술연구소 등 설립·유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협약한 인코어드는 협약 5개월 만인 지난 9일 에너지 인공지능 연구소 광주 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등 AI관련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의 광주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22개 시·군의회 '방사광 가속기 전남 구축' 건의안

광주·전남·전북의 대학 총장들에 이어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이 11일 정부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서명부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강필구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이순이 부회장, 김정오 사무총장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건의안과 서명부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전달하며,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방사광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전공대를 중심

으로 호남권 대학과 지역 기업이 연계하면 첨단 연구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전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고르게 확보할 수 있어,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호남의 산업기반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함께 동참해 주신 시·군의회와 함께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국 첫 '아열대 농업 지원 조례' 제정 눈 앞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아열대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도의회 조례가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시설이 열악한 전남 소규모어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만들어진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성 계획에는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기술 개발 및 보급, 상품 생산 및 유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도록 했다. 매년 아열대농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2018년 1월 기준, 전남에는 아열대과수 재배농가는 3479호, 재배면적은 1559만㎡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남에 아열대농업을 재배 농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20. 03. 06.(금) ~ 03. 19.(목)  
전남지역 거주(예정)종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 란**

-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 지원내용: 마을리더 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참조)
-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061) 729 - 2914, 녹색에너지연구원: 061) 331 - 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061) 362 - 5205

**접수 방법**

Click!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접속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가기업현황 내 참가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